

Ulybusheva Orchestra of Russian folk music

러시아 울리브쉐바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PROGRAM

1. “아리랑 환상곡” – 최성환 곡
2. “초원의 파노라마”
3. “해 뚫은 보리수 나무”
4. “박물장수” 노래 : 에두아르드 마로조프
5. “마르잔자(집시의 노래)” 도모라 앙상블
6. “꽃이 만발하였다” 노래 : 나탈리야 키릴로바
7. “시묘노브나” 바얀 : 알렉산드르 루카쉐비츠
8. “나의 기쁨” 노래 : 에두아르드 마로조프
9. “익살스러운 곡” 발랄라이카 : 니꼴라이 멀리니코프
10. “반야! 놀려와” 노래 : 나탈리야 키릴로바
11. “뻬테르부르그 거리를 따라서” 노래 : 나탈리야 키릴로바 & 에두아르드 마로조프

● CAST



지휘자 : 이리나 술라예바
Ирина Шеляева

*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라드 출생
* 니즈니 노브고라드 컨서바토리 졸업
* 울리브쉐바 러시아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지휘자
* 러시아 공훈 예술가



지휘자 : 오석신 O Сок шин

* 전북 익산 출생
* 러시아 사라토프 컨서바토리
- 민족음악과(기악 & 지휘) 졸업
*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라드 컨서바토리-심포니 &
오페라 지휘과(아스파란트-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3
- 2호 이리 향제 출품류 보존회장
* 사단법인 익산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지휘자



노래 : 나탈리야 키릴로바
Наталья Кириллова

* 국립 니즈니 노브고라드 컨서바토리
(아스파란트) 졸업



노래 : 에두아르드 마로조프
Эдуард Морозов

* 폐름 국립 예술 문화대학교 졸업

● HISTORY

러시아 울리브쉐바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Ulybusheva Orchestra of Russian folk music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라드에 소재한 9번 음악학교에서 1982년에 설립되었고 1993년에는 모범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설립 30주년 기념 연주회가 있었다.

악단은 이끄는 이리나 미하일로브나 술라예바는 니즈니 노브고라드 음악원 출신으로 러시아 공훈예술가이다.

구성원은 학생들과 졸업생,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오케스트라의 전체 단원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민속음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과 유럽의 클래식 음악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러시아의 민족악기로 연주를 한다.

악단은 국내와 국제 콩쿠르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고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도 악단은 관객들과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